

# 광주신세계, 농성역 리모델링 ‘시민 소통 공간’ 만들었다

### 광주시·교통공사와 협업...풀잼도시·대자보 도시 구현 기대 낙후시설 재정비...지역민 편의 증진·휴식 공간으로 재탄생

광주신세계가 광주시, 광주교통공사와 함께 광주 농성역을 리모델링해 시민 소통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광주신세계는 백화점 인근 지하철역이면서도 비교적 유동 인구가 많은 농성역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민 편의를 증진하고,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17일 광주신세계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 농성역에서 ‘농성역 시민 소통 공간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김이강 서구청장,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 강수훈 광주시의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농성역 시민 소통 공간 조성 사업은 광주신세계와 광주시, 광주교통공사가 낙후된 농성역 시설들을 재정비하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진행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광주신세계는 농성역 시민 소통

공간의 리모델링 시공비용 등을 부담하고, 백화점 운영 노하우를 도입해 고급스러우면서도 깔끔한 지하철 역사의 리모델링 디자인을 제시했다.

특히 공연무대에는 대형 발광 다이오드(LED) 모니터를 설치해 지하철 이용객들이 광주시의 주요 이슈와 생활정보 등을 간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광주시는 대형 LED 모니터를 통해 시의 주요 정책현안을 콘텐츠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등 시민 정보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 제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 광천동 인근은 광주신세계 확장, 광천동 재개발 등의 이슈와 더불어 증장로·구시청으로 대변되는 구도심과 삼우지구가 위치한 신도심의 중간에 있다는 지리적 위치로 향후 광주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번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 향후 광주 광천권역과 인접한 지하철 역인 농성역도 광주시민 뿐만 아니라 외지까지 관심을 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17일 광주지하철 농성역에서 새롭게 조성된 시민소통공간에서 시민들이 앉아 쉬고 있다. 농성역 시민 소통 공간 조성은 광주신세계와 광주시, 광주교통공사가 시민들에게 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한 사업이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농성역은 앞으로 이용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 소통 공간 조성 사업에 동참하게 됐다”며 “광주신세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디자인된 소통 공간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농성역 시민 소통 공간이 ‘풀잼도시’ 구현과 ‘대자보 도시’ 전환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일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5

## “광주공항은 국제선 취항...무안공항은 물류특화로”

### 광주시민회의, 시의회서 기자회견 “낮은 접근성·부족한 교통 인프라 민간·군 공항 무안 이전 비현실적”

무안군의 타협 없는 광주군 공항 이전 반대에 이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국제공항이 일시 폐쇄되면서, 광주를 중심으로 광주공항 국제선 취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에선 이에 광주공항을 서남권 국제공항으로 육성하고, 무안공항 물류 특화 공항 조성 의견까지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합소핑물 유치 광주시민회의(시민회의)는 1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공항을 서남권 국제공항으로, 무안공항을 물류 특화 공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광주·전남 시민들은 (무안공항)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인해 인건·김해·청주공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무엇보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 관광 업계에는 새로운 생명줄이 절실하다. 관광업은 광주 주요 서비스 산업 중 하나이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 국제선 재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주는 역사적으로 서남권 교통의 중심지였으나 국제공항 기능을 무안으로 넘기면서 그



북합소핑물 유치 광주시민회의는 1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공항 국제선 부활과 무안공항 물류 특화 공항 전환 등을 촉구했다.

역할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며 “무안공항은 낮은 접근성과 부족한 교통 인프라, 대형 항공사 철수 등으로 인해 여객 중심 공항으로 성장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 2800m로, 대형 화물기 운항이 가능하고 군산항·평택항과 연계해 물류 거점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며 “과부하인 인천공항 연간 화물 물량 중 3만 t만 무안공항으로 이관해도 국내 2위 화물 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광주공항 국제 여객 중심 공항 육성, 무안공항 물류·화물 중심 공항으로 전환을 위해 2026년 예정된 국토교통부 제7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에 무안공항을 화물 특화 공항으로 명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회의는 이날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 이전에 대해 “미래를 위협하는 비현실적인 논의”로 규정하고, 군 공항을 이전하는 대신 군 공항 소용 저감을 위한 훈련 횡수 축소, 소용 보상비 대폭 상향, 개발제한 구역 해소 등의 조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광주공항 국제선 취항 목소리가 이어지면, 광주시민들 사이에선 광주공항의 존치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앞서 광주관광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지역 여행사 단체도 광주상공회의소의 지요 여행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광주공항 국제선 노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글·사진=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 답시크 국내 신규서비스 중대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정책 미흡”...관련법 개정도 추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는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답시크가 국내 신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답시크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개인정보위가 답시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하길 권고하고, 답시크 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비롯한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앱 마켓에 선 답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가 제한된다.

기존에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는 일단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답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달라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답시크 앱 다운로드 횡수나 이용자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답시크 사를 통해 정확한 수를 추정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답시크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달 31일 답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바 있다.

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제, 수집 항목·목적, 수집 이용 및 저장방식, 공유 여부 등이다.

개인정보위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주요 지적 사항은 개인정보의 일부가 제공 시 구체적인 내용 공시 미흡과 개인정보의 과다 수집 등이다.

답시크 사는 지난 10일 국내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면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답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관련법을 충실히 준수하게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답시크 앱과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AI 서비스 6곳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은 약 5개월이 걸렸으나, 이번 점검은 답시크 한곳으로 한정된 만큼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내다봤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답시크 서비스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하고, 최종결과 발표전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도 함께 제시한다.

/연합뉴스

## 2025년 영산강지구 간척농지 임대공고(2026년 임대대상 포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영산강지구 간척농지에 대하여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임차하고자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임대대상

계약연도	지구	공구	토지소재지 (해당면적)	임대구역별	임대 구역번호	면적(㎡)	비고	
2025년	영산강2	영공4-6	영공4 상용면	일반농업임대 임대신청구역	1	1,013	9,750,661	피해농업임대 임대신청불가
					2	52	496,835.2	
					3	52	494,285.1	
					4	52	496,618.9	
					5	51	496,123.6	
2026년	영산강3-1	공2-1	해남군 산면면	피해농업임대 임대신청구역	6	50	499,908.8	일반농업임대 임대신청불가
					7	55	498,354.5	
					8	48	494,277.4	
					9	50	496,148.8	
					10	56	496,716.7	
					11	51	495,465.3	
					12	52	490,507.1	
					13	51	497,180.3	
					14	50	490,536.6	
					15	51	495,035.2	
2026년	영산강3-2	화면1	해남군 화면면	피해농업임대 임대신청구역	16	48	438,678.5	일반농업임대 임대신청불가
					17	34	329,941.1	
					18	36	372,170.9	
					19	21	222,733.3	
					20	23	233,878.1	
2026년	영산강3-2	화면1	해남군 화면면	일반농업임대 임대신청구역	21	41	396,807.8	일반농업임대 임대신청불가
					22	54	520,932.7	
					23	7	61,942.1	

### 2. 신청자격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영산강지구 간척농지에 대하여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임차하고자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2.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3.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4.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5.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6.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7.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8.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9.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10.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11.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12.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13.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14.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15.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16.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17.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18.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19.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20.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21.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22.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23.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24.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25.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26.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27.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28.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29.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30.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31.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32.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33.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34.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35.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36.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37.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38.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39.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40.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41.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42.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43.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44.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45.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46.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47.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48.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49.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50.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51.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52.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53.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54.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55.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56.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57.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58.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59.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60.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61.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62.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63.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64.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65.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66.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67.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68.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69.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70.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71.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72.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73.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74.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75.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76.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77.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78.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79.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80.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81.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82.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83.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84.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85.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86.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87.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88.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89.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90.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91.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92.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93.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94.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95.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96.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97.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98.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99.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

100. 임대대상 구역의 면적에 따라 임대대상을 결정한다.